

안테나

인천시, 다양한 국악프로그램 운영

인천시가 (사)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회가 위탁운영하는 '인천국악회관'에서 2023 상반기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예술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국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의 유일한 국악전문교육기관인 인천국악회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 교육·공연·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전통문화 공간이다.

먼저 다음달부터 5월 사이 진행되는 '오늘은 국악이랑 놀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천시 유치원 5개원을 (선착순) 초청하는 국악기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국악 전공자 강사진의 국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전통 국악기를 체험해 표현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이어 오는 5~6월 사이에는 '에듀국악' 제2기 온라인 프로그램(무료강좌)이 진행된다. 국악기 단소 강좌로 진행되며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악기의 이론 및 실기 과정을 교육한다. 또한 강사가 직접 수강생 개별 학습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등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하고 수강 기간 동안 자유롭게 동영상 시청 및 학습을 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웅진군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이 27일 웅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웅진군인재육성재단의 그동안 운영성과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2022년 사업결산(안), 기본재산 변경(안), 복도학사 지원사업 지원금 인상(안), 웅진군 창의인재 육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현재 157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2126명의 학생에게 약 4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웅진장학관 운영, 복도학사 지원사업, 학교 미설치 지역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재능개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식 기자

연수구, 봄철 산불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연수구가 27일 옥련국제사격장이 위치한 문학산에서 산불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지 적응훈련 및 산불 다발기를 대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형 산불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연수구청 및 미추홀구청 관계공무원, 인천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80여 명이 참여해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산불 발생 시 대응 요령, 살수 방법, 잔불 정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연수구는 봄철 산불 발생상황을 대비해 지난달 1일부터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영하며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감시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및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을 단속·계도하며 봄철 산불 다발기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지만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홍환 기자

인천환경공단, 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



인천환경공단이 다음달 7일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7회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매년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계약·발주·구매 담당자와 1:1 구매 상담과 기업의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담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총 681건, 14억3200만원의 실질적인 계약실적으로도 이어졌다. 구매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공단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제7회 공공구매 상담회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계은 이사장은 "특별히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상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우수 창업기업에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방안 강구

인천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경제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인천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준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겸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를 초청, 경제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상준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주제와 '인천시 뉴홍콩시티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제안'이라는 부제로 강연했다.

한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대내외 경영 여건 변화에 인천시가 대응하고 차세대 소비계층, 제6차 산업과 혁명, New Frontier 영역, 우주시대 대중화 등 미래과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환율 전망, 경제 분권화와 패권 다툼, 자원 무기화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한 논설위원은 "인천시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갖춘 뒤 각 권역별로 인프라(특히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준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겸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를 초청, 경제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금융 인프라)를 압축해 연결하고 무관세 혜택 등으로 상품과 사람, 자본 등의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제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이번 강연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직면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

천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정치·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지방시대'의 주역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아동돌봄 공백 없애고 효율성 제고 집중

인천시, 아동돌봄 계획 수립

3천억 투입... 23개 사업 추진

야간·휴일 돌봄도 신규로 진행

인천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돌봄의 공백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할 '인천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3031억원을 투입해 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2월 시행된 '인천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돌봄 분야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인천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은 '아동돌봄으로 꿈과 미래를 키우는 인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9개 정책과제,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

성됐다.

4대 전략목표로는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충족한 안심돌봄 환경 구축 △아동돌봄 질적 수준 제고 △아동돌봄 전달 체계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또 9개 정책과제는 △아동돌봄기관 확충 △아동특성 맞춤형 돌봄 및 마을돌봄 활성화 △아동 맞춤형돌봄 지원 확대 △아동돌봄 안전보호체계 지원 △아동돌봄시설 환경개선 지원 △아동돌봄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아동돌봄기관 공간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아동돌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이다.

세부 사업은 총 23개로 신규 사업이 14개이며 기존 9개 사업은 내용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갈 총사업비는 3031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야간 및 휴일 아동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거점형 야간돌봄센터와 긴급·휴일 돌봄센터를 군·구별 1개씩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느린학습자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돌봄 기관에 현장 교사를 파견해 인지학습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한다. 또 공모를 통해 돌봄 아동과 돌봄 주체가 속해 있는 마을 돌봄 공동체도 조성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또는 경제선 아동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틈새 돌봄을 파견하는 '특별돌봄 필요아동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하며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보호자인계까지 돌봄을 맡아주는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주민모임 등과 연계해 다양한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인천형 아동돌봄 이동서비스', 지역사회 내 돌봄·놀이·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마을 놀이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 아동돌봄기관의 환경 개선과 공간 다각화 지원, 위험방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돌봄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 종사자 대체 인력풀 구축 및 행정업무 간소화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28곳에서 오는 2026년까지 72곳으로 44곳을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 기존 사업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아동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의 아동이 공백없는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인천 안보책임자들 지역 안보현안 논의

'인천시 통합방위회의' 개최 지역 군사상황 정보도 공유

올해 사업 성과와 계획 설명

인천시가 28일 시청 인천데이터센터(IDC)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여창준 17사단장, 이영성 인천경찰청장 등 지역 안보책임자들이 모여 '2023년 인천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지역 통합방위회의

를 겸해 개최됐다. 국내외 안보상황 및 지역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달 8일 개최된 '2023년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해 시의 통합방위사업 추진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으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및 고강도 도발대비 스텔러 및 사이버위협 대비 △통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 인천지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안중삼 기자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전문가 무료 상담

인천시 '주거안심매니저'가 1대1 맞춤 상담 서비스 실시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도

인천시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28일 안전한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공인중개사회지부에

서 추천 받은 공인중개사 20명을 '주거안심 매니저'로 지정했다.

이들은 안전한 주택 거래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능력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담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터텔시티 상가A동 3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월세 계약과 안심전세임 사용 방법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주택정책과로 예약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몽골 울란바토르시 비양주르흐구와 우호 다져

인천 동구의회, 대표단 영접

우호협력 체결식 행사 가져

인천 동구의회가 28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비양주르흐구 대표단을 영접하고 우호협력 체결식 행사를 가졌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비양주르흐구 대표단은 5박6일의 일정으로 27일 한국을 찾았으며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통해서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우호협력 체결 행사에는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 및 의원을 비롯해 치미드 오치르 멘사이칸(Chimid-Ochir Mend

saikhan) 비양주르흐구 의회사무국장 등 몽골 방문단 11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유옥분 의장과 멘사이칸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유옥분 의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상호 교류가 막혔었는데 자매결연도시인 우리 동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비양주르흐구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동구와 비양주르흐구가 동반자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 방문단은 다음달 1일 출국 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인천산업유통센터 및 동국제강을 시찰하고 송도국제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도 견학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